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4.30원 상승한 1,224.80원에 마감
------	---------------------------------

12일 달러-원 환율은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 및 코로나19 재확산 경계에 전 거래일 대비 4.30원 상승한 1,224.8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24.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이후 환율은 미중갈등 심화 가능성 및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반영하며 1,220원 후반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그러나 오후 증시 반등에 힘입어 환율은 상승폭을 일부 거두어들이며 1,224.8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26.7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39.76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24.00	1228.50	1223.50	1224.80	1226.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34.74	1142.96	1134.74	1141.50	
금일 전망	전방위로 중국 압박하는 미국 ... 1,220원 후반 중심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코로나19 중국 책임조사 법안 추진 소식 및 미 연금펀드 중국투자 금지 움직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2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224.80원) 대비 2.15원 상승한 1,226.7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불안 속 미국이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며 미중간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의 책임을 조사하는 법안을 추진하였으며, 이 법안에 따라 미 정부는 대중 제재권한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미 정부는 연금펀드의 중국 주식 투자금지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의 대중 압박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더불어 환율에 상승압력을 주는 요인에 해당한다.

다만,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논란이 확대됨에 따른 달러화의 일시적 약세 및 당국의 경계로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1223.75 ~ 1231.25 원
---------	---------------------

예상 범위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105.4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15원 ↑
	■ 美 다우지수 : 23764.78, -457.21p(-1.8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1.8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68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